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8년 12월 6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6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2. 5(수)	담당부서	원전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	담 당 자	한진영 사무관(044-203-5322)

원전산업 R&D로드맵(Nu-Tech 2030) 착수회의 개최

- 원전핵심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 원전산업R&D 방향 수립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'18.12.6.(목) 11시 원전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와 함께 **「Nu-Tech 2030(원전산업연구개발(R&D)로드맵)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**했다.

< 「Nu-Tech 2030(원전산업R&D로드맵)」 착수회의 개요 >

○ **(일시·장소)** '18.12.6(木) 11:00~13:00, **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**

* 착수회의 이후 오후에 분과별회의(안전, 해체, 방폐, 수출 및 국제협력 분과) 개최 예정

○ **(참석 대상)** 총괄위원(산·학·연), 에기평, 산업부 등 **총 20명 내외**

- **(총괄위원회 위원)** 산·학·연 전문가, 각 분과 위원장 등 **15명 내외**
- **(산업부) 원전산업정책관**, 원전산업정책과장, 담당사무관

* 분과별회의: 안전·해체·방폐·수출 및 국제협력 등 4개 분과 총 50명 내외 참석 예정

□ **「Nu-Tech 2030」**은 원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**핵심기술 경쟁력을 유지**하고 원전해체,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**유망분야 육성을** 위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,

○ **원전산업 산·학·연 전문가(50여명 내외)가 참여**하여 '30년까지의 **원전산업 연구개발(R&D) 방향을 논의**할 예정이다.

□ 최근 원전산업은 ① 후쿠시마 원전사고, 경주·포항지진 등으로 인한 **원전안전 중요성 증가**, ② **원전산업생태계 경쟁력 유지 필요**, ③ 원전해체· 방사능 폐기물 등 **환경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**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.

○ 이러한 변화에 따라 「Nu-Tech 2030」은 **안전, 해체, 방폐, 수출 및 국제협력(미래 원자력 기술) 등 4개의 분야**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했다.

<Nu-Tech 2030(원전산업R&D로드맵) 주요 논의(예정) 내용>

구분	분과별 주요 논의(예정) 내용
안전	원전의 중장기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기자재(부품, 설비 등) R&D 지원
해체	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
방폐	원전해체를 통해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등 방폐물 안전관리 핵심기술 개발
수출 및 국제협력	원전 및 기자재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협력 등을 통한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 개발

□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"원전산업 연구개발(R&D)은 **원전산업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, 핵심 기자재 국산화** 등 지금까지 **원전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**을 했다."라고 말하고,

○ "이번 **Nu-Tech 2030 수립**이 원전의 안전운영과 해외 수출을 위한 **핵심 경쟁력과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"라고 강조했다.**

□ 「Nu-Tech 2030」은 착수회의 이후 약 4개월 동안 **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논의**를 거쳐 **'19년 3월 발표**한다.

□ 끝으로 「Nu-Tech 2030」은 '**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**(6.21일 발표)' 중 **산업부문 보완대책의 주요과제**로 추진하는 것이며, 산업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**원전산업 보완대책*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하기로 했다.

* ① 원전안전 투자 확대(현재 1.1→1.9조 원), ②안전·수출·해체 R&D 확대(5년간 1.3→1.6조원), ③ 에너지전환 펀드조성(500억 원), ④원전기업지원센터(11.22일 개소) 운영 등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한진영 사무관(☎ 044-203-53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